소외 이웃에 자비와 용기를 전합시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12만6천구좌 돌파

군법당 · 경찰서 등 8백67곳 부처님법 배달

온 우주 법계는 향기로운 꽃 향기와 푸른 실록으로 뒤덮여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자연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정경을 감상하며 행복감에 취해 있을 이 시간에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마음엔 아직도 매서운 겨울 바람만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온정을 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신문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의 정법을 전달해 줘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도심포교당,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 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12만5천8십 구좌에 전국 1천 1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154곳), 교도소 · 교정청(34곳), 구치소 · 감호소(12곳), 소년원 · 감별소(14곳), 양로당(24곳), 사회복지기관(182곳), 경승실(200곳), 불교병원(10곳) 등 총 867개 시설에 매주 1,195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28만1천7백2십부가 발송되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삶에 지친 이들에 용기와 희망을 진리에 목마른 이에 가로수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사진은 한 사찰 가판대에 놓인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있는 어느 불자의 모습.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보수	총보시 부수
군부대	군법당	154	190	50,040
	국군병원	9	11	8,676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34	206	34,746
	구치소, 감호소	12	36	14,726
	소년원, 감별소	14	42	4,572
복지단체	양로당	24	24	4,654
	아동복지	26	26	8,066
	장애인복지	11	11	3,516
	청소년복지	17	17	4,882
	사회복지기관	182	192	41,602
	불교병원	10	62	12,552
경찰	경승실	200	200	47,570
	경찰병원	2	6	1,116
지정법보	단체	112	112	27,382
	개인	60	60	17,620
		867	1,195	281,720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군부대 · 경찰서 · 교도소 등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만1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계좌로 통장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법보시 후원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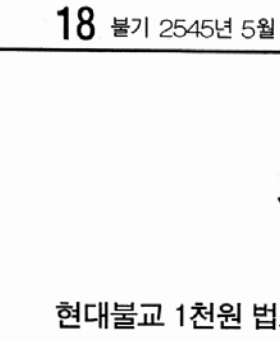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인터뷰

"불법 만나 삶의 희망 찾았어요"

의정부교도소 이성진 씨



"사회에서 잃은 게 재물이라면 여기 들어와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성진(62)씨다. 나이 육십에 비로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을 하던 이씨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왔다. 아들, 딸도 별 탈 없이 커 주었고, 사업도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 때부터 '술과 여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 독촉 하는 채권자와 다투다 '강도상해'라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 사회에 대한 원망이 앞섰다.

안양교도소를 거쳐 의정부교도소로 옮긴 두 달 뒤, 이씨에게 조그만 변화가 찾아왔다. 교도소 교화위원인 성관 스님(의정부 용현사 주지)의 법문을 들은 이씨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적이 있는가'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 욕심과 이익만 쫓아 살아 온 지난 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을 만나 불심을 키웠다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씨는 때늦은 후회 대신 '남을 위해 보시하는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교도소 금요법회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법회에 불참할 때는 〈반야심경〉 사경과 108배 정진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아침 · 저녁 〈반야심경〉 암송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108배로 하루를 정리했다.

이씨가 이런 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데는 법보시로 들어온 책과 신문이 큰 힘이 됐다. 경전뿐 아니라 〈불교 첫걸음〉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등을 읽으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현대불교 등 교계신문에 나오는 큰스님들의 법문도 꼼꼼히 챙겨 읽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간종흠 강갑순 강경동 강필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복 복지관 강성욱 강수현 강숙희 강슬옹 강신옥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은경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훈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정 경남지청 경소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고한사 공평근 곽영호 구영란 구진모 구진화 구진회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곡자 권복현 권성량 권순랑 권순혁 권연지 권영수 권영현 권오석 권오중 권오진 권옥숙 권은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초자 권혼순 기현정 김갑순 김경 김경선 김경수김경숙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경해 김경혜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은 김길옥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동자 김두영 김동남 김득자 김혜인 김말선 김명덕 김명옥 김명자 김명혜 김명희 김문중 김문주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정 김민수 김민옥 김법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병흔 김복남 김봉운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병 김상분 김상순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희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숙랑 김순경 김순남 김순례 김순미 김순덕 김순련 김순령 김순식 김순옥 김순현 김순희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겸 김애린 김애리지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민 김영애 김영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임 김옥 김옥경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준 김용화 김학배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우화 김은성 김은중 김은환 김은희 김은영 김의식 김인성 김인숙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장복 김정린 김정선 김정수 김정여 김정옥 김정원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화 김제철 김종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임 김종림 김주곤 김주식 김주원 김주형 김준만 김준모 김준영 김준형 김진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칠수 김춘자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춘희 김치호 김태희 김태훈 김택근 김한나 김현 김현수김현숙 김형창 김형형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효성 김효숙 김희남 김희순 김희수 김희순 나판숙 나숙희 나순옥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창수 남하자 노만호 노순남 노유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덕성암 덕운화 덕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병수 류영란 류정남 류정오 류즈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선희 문속자 문순조 문점숙 문정강 문필규 문필수 문화자 민경주 민병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음식 민현원 박강옥 박경남 박경식 박경애 박경숙 박경용 박광호 박구숙 박귀남 박금숙 박기규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외 박남옥 박내순 박덕희 박득수 박명희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배흔 박병옥 박병주 박복자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선영 박성례 박성수 박성준 박성진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숙자 박숙정 박순자 박순자 박숙희 박숙자 박숙경 박숙자 박은덕 박순득 박승희 박신근 박신영 박양임 박양자 박영서 박영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수 박영주 박영준 박영진 박영철 박옥남 박옥남 박옥이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은식 박이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근 박정자 박정하 박정희 박제원 박종두 박종심 박주연 박주린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진헌 박진환 박진자 박천연 박현혜 박희수 박형자 박은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리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희순 방금순 방명섭 방순철 방재순 배경숙배광홍 배동금 배명호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은자 배현주 배원주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옥남 백유선 백현기 백혜진 범인스님 범현스님 변미자 변인태 본사직원 본원보시원 본원봉사모임 본원신도 본원영 등포 본원의명 봉철웅 봉현주 부산신도회 부산직원사당5동법회 사림방 상미숙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말자 서말희 서명선 서병혜 서봉순 서부용 서심조 서옥경 서을월곡 서윤아 서인교 서정숙 서정희 서준 서진 서훈건 서용우 서월관 석혜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감분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 자 성영분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입 손광자 손금희 손명숙 손문연 손미숙 손낭희 손상률 손윤선 손인아 손인환 손장숙 손정자 손진임 손혜숙 손화자 송경자 송광옥 송규환 송근정 송미숙 송미애 송병준 송복희 송성의 송숙원 송양숙 송연숙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손희 신시균 신영준 신원민 신유진 신은진 신장재 신재락 신재철 신조원 신진임 신택전 신호용 신홍재 심공회 심공영 심근회 심능희 심단희 심반순 심묘희 심법희 심보희 심성학 심인희 심원희 심일희 심은자 심항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근 안영선 안재연 안진후 양병덕 양세옥 양영애 양은숙 양의근 양점순 양정순 어종선 엄남주 엄정임 여태순 영등포법회 영재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자 오영희 오주중 오즈희 오진희 오창원 오창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병만 오형희 오정숙 오혜숙 용산구법회 용환웅 우경에 우금식 우등례 우상용 울산한마음선원 원정옥 유광수 유금자 유미영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은 유정연 유정용 유춘자 육성희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령 윤미희 윤병희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훈 윤순이 윤영자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재숙 윤중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차남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윤현숙 윤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봉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춘 이기오 이기림 이길복 이남심 이노마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동준 이동희 이명규 이명수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봉훈 이부앙 이분순 이삼경 이상만 이상옥 이상운 이석준 이선임 이성수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고 이순덕 이순랑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애자 이양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연옥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용범 이우승 이운자 이유순 이윤옥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외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혜 이재국 이재숙 이재은 이재희 이정자 이정녀 이정혜 이정수 이정숙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환 이준만 이존석 이존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웅 이지형 이진경 이진선 이진수 이진영 이진우 이진혜 이창은 이창하 이창호 이창환 이천희 이철규 이범주 이창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희 이판순 이한독 이한숙 이한희 이항희 이항미 이현규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효진 이희숙 이희영 이희주 이효순 이은로 익명 인천신행회 임경희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문숙 임선원 임소연 임영이 임옥빈 임옥재 임원숙 임우식 임인석 임재순 임정숙 임종미 임창건 임채임 임춘심 임혜순 임행대 임홍민 임효정 임희자 장금강 장미 장미순 장미옥 장영순 장영한 장왕자 장정 장정가톡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춘자 장태복 장해기 전갑임 전계연 전규백 전류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심우 전수남 전순자 전순조 전승현 전연서 전연태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장숙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원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교비 정구순 정금란 정금란 정대자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향 정미애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주 정상업 정숙남 정숙점 정숙정 정순자 정심화 정연경 정연정 정연서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영신 정옥녀 정옥천 정옥재 정은경 정인순 정점순 정정국 정정수 정정자 정정희 정근호 정진욱 정학준 정필수 정팔순 정필준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호태 제주보현회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동만 조명래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근 조승수 조악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석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인규 조인자 조정현 조정은 조찬제 조현애 조혜숙 조혜연 주영단 주우수 주인공 주현순 지경여 지묘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유미 지인화 지창인 진갑임 진경상 진경수 진광현 진병중 진영숙 진영희 진옥례 진옥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진정임 차수창 차수창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복연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천희조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금철 최민례 최명희최범순 최병연 최병조 최복남 최복녀 최상첨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최심향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영숙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두 최재희 최정근 최정기 최정은 최정민 최정희 최주현 최하규 최학수 최행선 최현민 최현주 최형석 최혜연 최호자 최호자 최호자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 태국지원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씩남 하선희 하성호 하순애 하순임 하은영 하정희 하홍용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봉사 한기선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방근 한병조 한상현 한숙희 한순예 한순자 한승천 한아름 한양지 한영옥 한영진 한임련 한정석 한재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정 함광정 함기석 함명익 함삼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극 허수자 허승자 허외숙 허재승 허재영 허점자 허정남 허정은 허종환 허진용 허진우 허혜연 허희영 허희정 허희숙 현봉희 현수천 현원스님 현추월 혜월당 호소회 홍경옥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병숙 홍소순 홍은아홍은영 홍영근 홍영호 홍인자 황경숙 황금희 황기용 황영분 황옥단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황청영 황태숙 회복내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畫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법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옥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